

營戰略으로서의 特許管理

세 이 코

特許管理는

當社は 1937年 당시 販部時計店工場精工舎의 손목時計 및 懷中時計製造部門에서 分離・獨立하여 第2精工舎로서 發足하였다. 이후 1970年代 前半까지의 40年間은 機械式時計를 주로 만들어 왔지만, 그동안은 쉽게 他社가 따라올 수 없는 獨特한 細密技術을 保有하여 國內에서는 少數의 時計메이커의 一員으로서 獨占狀態를 維持할 수 있었다. 1960年代 前半 外國의 技術을 앞지르기 위해서도 特許管理에 힘을 기울이기 始作해 特許係가 誕生했지만 機械式時計의 技術을 크게 올릴 수는 없었다.

機械式時計에서 電子式 時計로 轉換하여 그것과 서로 前後해서 다른 分野의 進出을 推進해 電子業界로서 本格的인 技術競爭의 世界에 參與해 特許情報管理의 重要性을 約 10年前서부터 認識해 오고 있다.

特許情報 활용

當社の 特許情報管理에 관한 基本的인 責任分擔은 一貫해서 「特許情報의 活用은 各 技術部門에서 하고 特許部門은 本社 機能으로 特許情報의 蒐集・整理・配布・閱覽準備 및 特許情報活用の 技術部門에 대한 指導와 協力을 한다」라는 形을 取하고 있다.

特許정보를 自己의 業務에서 살리거나 살려야 되는 것은 特許部門이 아니고 技術部門이며, 그 必要에 맞는 特許정보의 活用이야말로 살아있는 活用이며, 直接 技術部門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技術者는 特許정보에 대해 專門家 아니어서 그 蒐集에도, 分析에도 特許部門의 助力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技術部門 主體에 있어서도 複數部門에 걸친 테마나 全社의 테마의 경우에는 特許部門이 中心이 되어 하게 된다.

特許調査 체제

特許情報調査의 類型을 크게 나

누면 特許情報 發生時點에서 이것을 監視하는 特許監視와 몇년동안 蓄積된 特許정보를 소급해서 調査하는 소급조사로 나눌 수 있다.

當社は 前述한 대로 技術部門 主體로 시스템이 되어 있고 特許部門은 그에 반해 特許資料의 提供・調査・分析에 있어 助言・協力, 特許權抵觸判斷 等の 參謀機能을 갖는다.

特許 감시

特許監視는 事業所 單位로 責任을 갖는다. 즉 各事業所에는 特許監視를 위한 特許資料를 準備하는 特許連絡員이 있고 또한 特許監視를 遂行하는 特許監視推進員이 監視테마마다 指名되어 있어 各 特許監視推進員의 이름과 그 監視對象 國際特許分類(IPC)는 모두 特許部門에 報告되어 特許監視分擔表로 整理된다. 特許監視推進員은 當社의 關聯會社를 包含하여 現在 約120名이다.

事業所에서 公告公報合本이나 公開抄錄, 公表抄錄이 各各 直送되어 온다. 더윈트의 抄錄은 特許部門

이 一括 購入해서 內容別로 必要한 事業所에 回覽시킨다. 特許連絡員이 이것들을 事業所內의 特許監視推進員이 監視할 수 있도록 事業所內 回覽 또는 閱覽室에 準備하여 所定의 期限內에 監視를 끝마칠 수 있도록 管理한다. 一部에서는 監視終了後 다른 事業所로 이 特許資料를 傳送해서 資料를 共用하고 있다.

特許監視推進員은 이를 特許資料에서 技術的으로, 特許的으로 注目해야만 하는 것(注目發明)을 抽出하여 複寫해서 自部門의 特許정보로 하여 Patent Map 化하는 等으로 整理 活用과 함께 特別히 重要하다고 判斷된 것(이것은 A評價라 한다)은 特許部門에서 記錄한다. 特許部門에서는 A評價提供의 技術部門과 함께 問題의 有無를 檢討하고 2次評價(對等)을 決定하여 社內의 컴퓨터시스템에도 入力한다. 對策에 있어 特許異議申請을 必要로 하는 것은 直接 技術部門과 特許部門과의 共同作業으로 無效資料의 調査를 한다. 審査經過를 받아야 하는 것은 特許部門이 定期的으로 PATOLIS를 使用해서 管理하고, 審査請求・拒絕査定・審判請求 等の 變化를 技術部門에 報告한다.

監視能率를 올리기 위해 注目發明抽出率의 낮춤, 즉 여러의 特許情報報中에 注目해야할 것이 없는 技術分野에서 特許監視推進員은 檢索條件을 充分히 確認한 뒤에 SDI을 進

電子工業(株)

特許部門, 活用은 技術部門

行하고 있다. 이와같은 境遇에 多數의 特許情報을 調査하는 것은 非能率의 일 뿐만 아니라 漏落의 危險도 많기 때문이다.

特許監視推進員에 대해서 그 責任者인 上長의 指示로 會合이 必要에 따라 行해지고 또한 事業部門의 特許監視推進委員의 連絡會도 特許部門主催로 年1回 정도 열려 情報交換을 하고 있다.

遡及조사

特許監視는 어디까지나 時事的인 情報蒐集이다. 여기서 어느 정도 先見之明을 갖고 있어도 後의 社內外的 變化에 따라 後日 必要하게 되는 것을 看過해 버리는 일이 있다. 따라서 遡及調査가 必要하게 된다.

遡及調査는 企劃에서 販賣까지의 各段階에 따라 必要해 진다. 特許監視가 앞으로의 技術動向, 企業動向의 分析, 當社의 開發方向의 資料로서 또한 他社의 問題特許의 事前排除, 回避策으로서 豫防醫學의 인 面에 要點이 있어 積極的인 자세인데 反해 遡及調査는 現實 目前의 問題把握이며 그 具體的인 對策은 어느쪽이냐 하면 臨牀醫學의 이다. 이것도 또한 緊急·重要한 業務이다. 遡及調査는 그 프로젝트擔當者가 直接 맡는 外에 事業所의 特許連絡員이나 時計部門의 멤버도 協力한다. 프로젝트의 規模 重要性에 따라 調査手法는 選擇하지만 一

般的으로는 우선 技術部門과 特許部門이 協力해서 그 技術內容에서 對象特許分類를 하고 또한 PATOLIS 등의 機械檢索으로 할 것인지, 公類公報의 調査가 必要한지, 機械檢索과 調査의 併用이 可能한지 등으로 調査手段을 選擇한다.

調査의 結果 檢出된 問題特許는 最終的으로 特許部門에서 權利確認, 抵觸判斷을 하여 問題가 있을 때는 技術部門과 特許部門이 協議를 거쳐 特許回避策·特許排除策·實施料의 支拂豫定化·特許權者와의 折衝 등의 對策을 뜻한다.

遡及調査의 結果도 必要에 따라 前述의 社內점퓨터시스템에 入力하여 그후의 調査 등의 處置를 한다.

特許資料의 整備

特許調査를 위한 資料로서 特許部門에서는 特許索引類 公報類를 保管하고 또는 社內外的 데이터베이스를 利用하고 있다.

特許部門에서는 特許公報·明細書·抄錄의 分類別 페이지는 當社에 必要한 것이 몇분의 일 밖에 갖추어져 있지 않다. 整理의 수고와 保管場所의 問題, 또는 그 以上으로 技術部門主導로 特許情報를 活用하는데 特許部門에서 資料를 集中保管하는데 利點이 적기 때문이다. 그대신 日本의 公告·公開公報는 番號順으로 마이크로필름을 全部

갖춰 番號를 알면 어느 分野의 公報라도 複寫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外國의 特許明細書는 時計分野만 保管하고 있어서 大部分이 그때마다 購入하게 된다.

이와같은 社內特許資料의 狀況에서 日本特許의 調査는 PATOLIS (商標로는 BRANDY) 外國特許調査에는 더윈트, DIALOG의 特許과 分類, PATOLIS의 INPADOCL利用의 程度가 매우 높다. 分類別再調査는 特許廳 資料官의 利用이 가장 많아지고 있다.

技術情報 이외의

特許情報 活用

特許情報의 利用價値는 技術部門에만 있지는 않다. 總務·企劃·廣告·購買·營業 등의 諸機能으로도 特許情報를 活用하면 適切하고 有利한 活動을 展開할 수 있다. 商標政策에는 商標의 情報가 필수이고 購買·營業에 있어서는 自社의 特許를 알고 著作權을 意識하여 이들 問題뒤에 있는 世界의 知的所有權制度가 어떻게 運用되며, 變해가고 있는가를 안뒤에 對策折衝·社外宣傳을 하지 않으면 어느날 갑자기 警告를 받는 등 생각하지 않은 障害가 생긴다. 新會社·新事業·新製品의 企劃에도 이 問題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

全社의 特許課題나 事業部共通의 特許課題에 관해서는 特許部門이 社內에서 講習會·研修會·說明會를 主催하고, 다른 會議의 자리를 빌어 說明하고, 혹은 特許뉴스를 配布하고 보다 適切한 特許情報의 利用·分析을 할 수 있도록 그 環境을 만드는 努力을 하고 있다. 또한 그를 위하여 特許部門의 멤버는 항상 特許制度 등의 動態도 注視하여 自社에의 影響을 檢討하고 또한 本社機能으로서 特許情報의 分析에도 努力하고 있다. <○>